

# 비스마르크와 독일의 自由主義

吳 麟 錫

(시양사학과 교수)

## I

政治的 슬로건으로서의 독일의 自由主義는 독일 부르주아지의 政治的 解放과 民族的 要求, 즉 “自由와 統一”로 상징된다. 1866年 프로이센 憲法鬭爭의 終結과 함께 성립된 國民自由黨은 “自由”를 획득함으로써 “統一”을 달성하겠다는 이제까지의 그들의 원칙을 단념하고, 비스마르크와 妥協함으로써 “統一”을 달성한 뒤 “自由”를 획득하겠다고 주장하여 크게 方向 轉換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가 일어나게 된 背景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많은 歷史家들은 그것을 비스마르크의 權力政治에 대한 독일 自由主義의 ‘投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Carl E. Schorske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국의 國民自由黨의 核心인 進步黨의 강력한 右翼分派는 ‘血과 鐵’으로써 독일 統一을 성취하는 代價로서 프로이센의 權威主義에 대한 鬭爭을 포기하였다.<sup>1)</sup>

독일의 保守的 歷史家들은 自由主義者들의 ‘投降’을 現實政治(Realpolitik)의 실현으로 評價하고 있다.<sup>2)</sup>

또한 독일의 自由主義的 歷史家들도 ‘投降’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原因은 독일의 政治文化에 欠乏한, 自由主義的인 傳統이 결여되었던 탓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sup>

이 論文의 目的은 독일 自由主義의 비스마르크에의 ‘投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라는 문제를 검토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당시 독일 自由主義 勢力의 主流이었던 國民自由黨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9세기 독일의 自由主義는 다른 西유럽의 自由主義의 基本的 原理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의 政治文化와 社會經濟的 特殊性 때문에 獨自的인 성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학술진흥 연구비(대우재단)에 의해 작성되었음.

1) C. Schorske, *German Social Democracy, 1905~1917* (1955), p.2.

2) A. Wahl, *Deutsche Geschichte*, 4 Vols. (1926~36) Bd. 1, p.46.

3) F. Darmstaedter, *Bismarck and the Creation of Second Reich* (1948), pp.309-11; F. Sell, *Die Tragödie des deutschen Liberalismus* (1953), p.226; H. Kohn, *The Mind of Germany* (1960), p.157.

없다. 독일의 자유主義者로부터, 서유럽의 자유主義者와 같은 絶對王政과 常備軍에 대한 강력한 敵意나, 人民主權에 대한 무조건적 要求, 그리고 革命의 正常化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독일 자유主義는 反體制的 성격이 짙어졌었는데, 그것은 權威主義的 體制와의 본격적인 충돌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없었다는 사실에 유래한다. 독일의 자유主義는 絶對王政과 貴族, 僧侶의 特權, 그리고 社會·經濟的 制約들을 改善하여, 法治國家(Rechtsstaat)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法治國家의 理念은 모든 市民이 平等하고 人民의 立法, 行政에의 參與가 보장되고, 思想的 社會經濟的인 個人의 自由가 보장되며, 法에 의해 政府에 服從하는 立憲國家를 의미하였다. 대부분의 자유主義者들은 이성과 같은 法治國家의 實現을 위해 君主와 人民에 의한 二元的 主權을 주장하는 混合憲法을 지지하였다.<sup>4)</sup>

프로이센의 憲法鬭爭중에 자유派는 프로이센의 軍隊再建을 반대하여, 정부의 豫算案을 부결하려 하였다. 따라서 保守派는 자유派가 君主를 名目上의 存在로 만들어 議會主權의 政體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派의 목표는 보다 온건한 것이었다. 그들이 지향한 것은 議會主權이 아니라 1850년 프로이센 憲法<sup>5)</sup>에 나타난 權力의 分立이었다. 자유派의 機關紙 『폴크스짜이퉁』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進歩黨은 政權을 전면 거부하는 野黨은 아니다. 그렇다고 反對를 빌미로 스스로 政權爭取를 노리는 受權政黨도 아니다.<sup>6)</sup>

빙클러는 이러한 자유派들의 빈번한 주장을 단지 ‘策略’으로 간주하고, 자유派의 목표를 프로이센에서의 議會主權의 확립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進歩黨이 現代의 自由 民主主義者들과 같은 議會主權 이념을 지녔다가, 비스마르크의 빛나는 外交政策에 현혹되어 갑자기 그들의 종래 주장을 뒤집었다는 說明은 애초부터 無理가 있으며, 非歷史的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당시 독일의 자유主義者들이 독일의 政治文化에서 어떠한 狀況에 直面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19世紀 後半으로부터 20世紀에 걸친 독일 政治史에 나타나는 자유派 政黨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政黨의 原型은 거의 19세기의 60~70년대에 형성되었다.

독일 政黨史에서 일정한 綱領과 組織을 가지고 登場한 최초의 政黨은 독일 進歩黨이었다.<sup>7)</sup> 이 당은 1861년 프로이센 領邦의 자유主義派內의 急進分子에 의해 결성되었다. 그 정

4) O. Klein-Hattungen, *Geschichte des deutschen Liberalismus*, 2 Vols. (1911~12), Bd. 1, p. 3, 45.

5) 三月革命의 귀결로 선포된 欽定憲法으로 보수파의 양보로써 계경되었다. 민주당의 議會主權은 거부되어, 강력한 國王大權을 임존시킨체, 지방 선거(三級選舉制)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下院)와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國王權과 議會가 권력을 지니는 체제였다.

6) *Volkszeitung*, April 18, 1862. H. Winkler, *Preussischer Liberalismus und deutscher Nationalstaat.... 1861~1866* (1964), p.14에서 인용.

7) cf. Th. Nipperdey, *Die Organisation der deutschen Parteien vor 1918* (1961).

치적 계보는 대체로 ‘三月革命’ 期 민주파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었다. 1866년 비스마르크에 대한 자세를 둘러싸고 分裂된 뒤, 進步黨의 殘留派는 自由主義 左派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議會에서는 少數派로 남아 뒤에 左翼 自由派의 主流가 되었다.

바로 1866년 進步黨 分裂에서 脫黨한 그룹이 프로이센 領邦 以外的 ‘國民自由主義者’와 合流하여 結성한 것이 國民自由黨이었다. 이 黨은 이제까지 自由主義者들에게 公同적이었던 反비스마르크의 態度를 수경하고,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의 國家統一事業을 지지하고, 새로운 國家體制內에서 自由主義的 要求의 充足을 획책하게 된다. 나아가 政治的 自由를 留保하더라도 經濟的 利益의 貫徹을 바라는 부르주아의 요구를 대변하게 된다.

帝國創建 當時, 독일帝國內의 政黨은 新舊의 둘로 區分될 수 있다. 舊政黨이란 選舉民의 數가 少數에 머물어, ‘國民大衆 (Volk)’이 아직 政治的으로 動員되지 않았던 時代에 나타났던 名望家들의 政黨으로 保守黨, 國民自由黨 그리고 進步黨<sup>8)</sup>이 이에 속한다. 새로운 政黨은 그 뒤 國民政黨 (Volkspartei)이 되어 大衆 속에 파고 들어 大衆의 生活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대한 조직, 가톨릭 中央黨, 社會民主黨이 이에 속한다.

統一以後, 독일 自由派의 中心이 된 政黨은 비스마르크의 外交政策을 지지한 國民自由黨이었다. 당원은 西프로이센, 새로 병합된 여러 州, 그리고 南독일 출신자로 구성되었다. 이 정당이 理想으로 한 신조는 法治國家, 진보적인 立憲國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議會民主制 國家이었다. 그러나 國民自由黨의 기본 노선은 어디까지나 ‘先統一’, ‘後自由’이었다.<sup>9)</sup> 國民自由黨의 左편에는 舊進步黨이 있었는데, 그들은 독일이 議會制 國家가 되기까지는 反體制的 立場을 固守하고자 하였다. 비스마르크는 進步黨員이 共和國을 志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니,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同黨은 다만 비스마르크의 權威主義를 비판하고 공격한 데 불과하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태도를 ‘帝國에 敵意를 가진 것’으로 매도하였다. 오이겐·리히터의 進步黨은 民主化에는 찬성하였으나, 그것은 體制內로 제한되었으며, 社會的 進歩는 때가 성숙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國民自由黨은, 大政黨이 되면 대개 그렇듯이 左右로 分派되어 흔들리게 된다. 國民自由黨의 右派는 保守黨에 쏠리고 있었고, 그 左派는 舊進步黨과 사이가 좋았다. 실제로 左派는 1884년, 進步黨과 合體하여 ‘독일 自由思想家黨’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結成하였다. 비스마르크 집정기 마지막 무렵에는 國民自由黨과 保守派政黨인 自由保守黨, 舊保守派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선거 전술면에서 한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名望家 政黨으로서 國民自由黨은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運營되었나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 議員이건 一般 選舉民이건 막론하고 政治行動의 單位는 政黨이 아니라 個人이라는 觀念이 우월하였다는 점이다. 비스

8) 60년대 진보당은 國民大衆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격상 아직 名望家 政黨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9) Th. Nipperdey, *op. cit.*, pp.9-15.

마르크는 回想錄 속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黨員의 대부분이나, 다양한 宗派의 信者의 대부분은 모두 같은 입장이다. 자기 信條가 어떠한 점에서 결합 관계에 있는 他 信條와 구별되는가 말해 보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한다. 독일의 政黨의 경우 진저로 結束의 중심이 되는 것은 綱領이 아니라 한 個人, 즉 議會에서의 傭兵隊長인 것이다.<sup>10)</sup>

막스·베버는 당시 名望家 政黨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政黨을 시로 분립시키는 계기는 원칙적인 의견의 대립이 아니다, 오히려 개개의 지도적 정치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個人的 顧問團, “腹心機構”이다. 많은 自由主義的 또는 半自由主義的 그룹을 시로 분리시킨다고 생각되었던 “世界觀的”要因을 설명하기 어렵다. 구체적 문제가 제기되면, 의견의 대립은 政黨間이 아니라 政黨 自體 內部에서 일어났다.<sup>11)</sup>

따라서 이들 自由派 政黨이라는 것은 構成員의 行動을 구속하는 조직이라기보다, 하나의 政治的 基本原理를 지지하는 자들 사이의 완만한 結合으로서 간주되었다. 정당은 무엇보다 정신이나 信條라는 면에서 강조되었고, 조직적 결합이란 둘째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1878년 어떤 判決文의 표현은 특징적이다.

政黨의 黨員을 결합하고 있는 유일한 끈은 그들이 일련의 동일한 종류의 문제에 관해 동일한 의견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은…自由主義 政黨이라든가 保守主義 政黨이라 말한다. 이러한 政黨은 그 黨員에 대해 어떤 特權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義務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 黨員의 증가나 감소도 당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입당이나 탈당이라는 것도 보통 명확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도 없다. 組織은 政黨에 있어서 無關係의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이러한 명망가 정당은 정치적으로 통치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치명적 결점을 띠게 마련이었다.

名望家 政黨과는 달리 새로운 타입의 政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大衆組織과 世界觀을 지닌 大衆政黨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 첫번째로 1870년 가톨릭 中央黨이 형성되었다. 中央黨은 프로테스탄트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통일에는 반대였기 때문에, 그 방대한 教會組織을 이용하여 大衆政黨을 조직하여 선명한 反體制的 性格을 띠게 되었다. 中央黨은 ‘新教 帝國(Evangelisches Kaisertum)’인 프로이센 統一國家의 위협 속에서 가톨릭의 생존을 위한 政治鬭爭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앙당의 鬭爭의 鬭爭은 동시에 비스마르크의 鬭爭의 鬭爭, 즉 ‘文化鬭爭’을 유발하기 마련이었다.

또 하나의 大衆政黨은 勞動者 大衆의 社會的 解放을 목표로 창설된 社會民主黨이었다. 社會民主黨은 産業化 過程에 직면한 독일 社會에서 광범한 노동자계급에 파고 들어 그들을 意識化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10) G. Mann,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 (1966), p.283에서 인용.

11) *Ibid.*, pp.283-4.

12) Th. Nipperdey, *op. cit.*, p.11f.

비스마르크는 이 두 大衆 政黨에는 분명한 敵意를 나타내었다. 두 정당은 카이저시대 帝國內的 부정적 세력, 즉 '帝國의 敵'으로 낙인찍혀, 가혹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 2

독일의 자유主義는 二月革命 時期 이래 穩健自由主義라고 할 수 있는 自由派와 急進自由主義의 性向을 띠고 있는 民主派로 兩分되어 있었다. 自由派의 政治 體制論은 그 중심 인물인 Hansemann의 覺書에 의해 표현되었다. 이 각서에서 한계만은 當時 官僚專制를 격렬히 비판하고, 부르주아지에게 參政權을 부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왕의 絶對的 拒否權, 議會解散權, 官吏任命權, 法令의 裁可權 등 중요 權限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國王權力의 중추적 部分을 온전시킴으로써 議會를 중심으로 하는 下層 民衆의 政治 參加를 방지하려 하였다.

이에 비해서 民主派의 政治 體制論은 그 중심 인물이었던 Waldeck의 憲章<sup>13)</sup>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1) 議會決議에 대한 國王의 絶對的 拒否權이 부정되어, 制限的 拒否權만이 인정되었고, (2) 兩院에 의해 세번 변경되지 않고 승인된 法案은 法的 有效性을 지니며, (3) 大臣은 議會의 要求가 있으면 議會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議員은 出生, 財産에 관계없이 보통, 평등 선거법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하여 議會主義를 견지하고 있다.

三月革命期, 民主派와 自由派의 흐름은 60년대에 도 健在하였다. 그것에 보태어 그 후의 정치 경제의 발전 속에서 現實主義의 그룹이 형성되었다.<sup>14)</sup> 그들은 急進派의 농후한 理念主義의 傾向에 반대하여 당시의 政治文化의 現實 속에서 自由主義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統一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領邦分立의 뿌리깊은 傳統을 제압하여 독일 統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며, 그 강력한 힘의 담당자는 프로이센 領邦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政治的 發想에 重點을 두는 政治的 現實主義 그룹이라 한다면, 經濟的 發想에 重點을 두는 經濟的 現實主義 그룹이 存在하였다. Michaelis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독일 만체스타派가 그것이다.<sup>15)</sup>

그들은 經濟的 인테레스트의 立場에서 독일의 地方割據의 障害를 제거하기 위해서 全독일적인 '독일 經濟者 會議(Kongress deutscher Volkswirte)'의 組織化에 주력하여 그 실천 조직으로 關稅同盟을 추진하였다. 특히 그들은 關稅同盟을 軸으로 하여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國內市場의 統一을 획책하였다. 19세기 60년대에 이르러 독일 統一의 要求는 이미

13) E. Huber,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d. II, p. 730ff.

14) cf. E. Anderso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in Prussia 1854~1864* (1954), pp. 119-148.

15) cf. W. Schunke, *Die preußischen Freihändler und die Entstehung der nationalliberalen Partei* (1910).

과거 부르쾨렌샤프트운동에서 볼 수 있는 理想的인 것이 아니라, 經濟的 必要條件이 되어갔다. 產業資本主義의 진행과 함께 國內市場의 統一이라는 要求에 내해 領邦分立의 地方割據的 遺制는 견딜 수 없는 桎梏이 되어갔다. 여기에 프로이센 中心의 독일 統一이라는 ‘독일의 使命’의 수행은 프로이센의 自由主義者뿐 아니라 關稅同盟의 發展으로 프로이센과 관계를 맺고 있는 中小 領邦의 부르주아지에 있어서도 共通의 悲願이었다.

工業化의 胎動과 함께 등장한 國內市場의 統一의 要求는 三月革命의 ‘自由와 統一’이라는 政治的 要求와 結合하여 계승 발전되었다. 三月革命은 그 政治的 結果로 各領邦에 있어서 부르주아지의 參政權을 확보시켰으니, 독일 統一의 要求로까지는 권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革命의 課題는 未完으로 끝났다. 그러나 19世紀 60年代에 이르러 統一의 要求는 단순히 理想的 政治的 要求뿐 아니라, 經濟的 要求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課題이었다.

한편, 下層民衆, 특히 勞動者層은 國家的 政策決定過程으로부터 疎外되었기 때문에 독일 統一이라는 國民政 과제에 있어서도 소외적인 존재였다. 오히려 그들의 政治的 代價자들은 내셔널리즘보다 疎外된 계층인 勞動者의 國際的 團結, 즉 인터내셔널리즘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中·南 독일을 주요지반으로 했던 아이제나하派는 그 綱領에서 公同연히 勞動者 인터내셔널리즘을 부르짖고 있는 등, 國內市場의 統一을 中軸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에 일광하고 있던 부르주아와는 그 政治的 方向을 달리하고 있었다.<sup>16)</sup>

다음으로 귀족·옹키를 중심으로 하는 守舊的 保守主義者들은 統一問題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살펴본다.<sup>17)</sup> 독일의 경우, 貴族層 全體의 연대감은 상당히 희박하였다. 19세 후반, 독일 통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귀족·옹키들은 統一指向보다는 기존특권의 유지에 급급하여 出身地域, 經濟的 利害關係를 앞세웠던 것이다. 그것은 독일 保守黨의 構成에서도 확인된다. 黨內 세력분포를 살펴보면 프로이센 출신이 대부분이고, 非프로이센 출신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다.<sup>18)</sup> 따라서 이 당이 公稱처럼 全독일 규모의 보수 세력의 結集政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창설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있어 내셔널리즘 운동의 視界에는, 守舊 反動勢力과 勞動者는 들어 있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내셔널리즘의 담당자는 부르주아 名望家層이 主流이었다고 할 수 있다. 統一問題가 부르주아 名望家의 이데올로기라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由를 前提로 하는 統一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使命’의 遂行으로시의 統一은 결코 독일 自由主義의 專有物은 아니었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統一問題는 부르주아뿐 아니라 保

16) cf. F. Mehning, *Geschich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d. II (1960).

17) cf. E. Jordan, *Die Entstehung der konservativen Partei und die preußischen Agrarverhältnisse von 1843* (1914), p. 3ff.

18) M. Spahn, *Zur Entstehung der nationalliberalen Partei* (Zeitschrift für Politik, Bd. I. 1908), p. 400f.

守勢力 內部에서도 守舊的 反動派를 제외한다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必然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頂點에 비스마르크가 서 있었다.

## 3

19세기 유럽史上 一大課題였던 독일 統一國家의 建設은 비스마르크의 獨自的 意志에 의해서 遂行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잡한 국내관계와 긴박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分裂되었던 30여 국가를 統一한 비스마르크의 統一 思想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스마르크의 思想은 단순한 理論이나 觀念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政治家로서 그가 당면했던 복잡한 現實的 여러 關係 속에서 서서히 발전된 歷史的 產物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순수한 용커(Junker vom reinste Wasser)’로서 태어나 용커의 教育을 받았고 또한 용커를 代辯하는 자격으로 1847년 2월 連合州會議(Der Vereinigte Landtag)라는 공적인 政治 舞臺에 등장하였다. 이 會議에서의 最初의 그의 發言은, 한 自由派 議員이 1813년 헤방전쟁에 있어서의 人民의 봉기는 단순히 나폴레옹의 外國支配에 대한 憎惡 때문이 아니라, 또한 憲法의 약속에 대한 人民의 희망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났다.

1813년 國民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外國人이 우리 國土에 끼친 恥辱以外的 다른 動機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긴급히 반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내 생각에 의하면 만일 사람들이 프로이센이 외국의 폭력자에 의해 입은 학대와 굴욕이 그들의 피를 격동시켜, 外夷에 대한 분노로써 다른 모든 감정을 마비시키는 데 충분치 않았다면 그것은 國民의 영예를 크게 그르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그의 견해는 뿌리깊은 그의 反立憲主義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의견은 같은 장소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문제는 하나의 권위있는, 法律的 拘束力있는 宣言을 할 수 있는 權利를 지닌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오직 君主밖에는 없다는 것이며, 이 確信은 내가 믿기에는 우리 國民의 法意識 속에 存在한다는 것이다. … 여기에서 현재 영국 國民이 1766년 제임스 II세를 추방한 후, 그들의 법률을 지키려고 한 方法과 프로이센 國民이 현재 그들의 법률을 승인시키려는 方法사이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당시 영국의 國民은 오늘의 프로이센 國民과는 전혀 다른 지위에 있다. 그들은 한 世俗의 혁명과 내란을 통해 왕관을 받은 오렌지 공 월리엄이 점수한 것 같은 條件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상내에 있다. 반면, 프로이센 君主는 國民으로부터가 아니라 神의 恩寵에 의해 실제로 길내적인 왕관을 받아, 그 法律을 自由意志로 國民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실로 역사상 드물게 볼 수 있는 예이다.<sup>20)</sup>

비스마르크는 이 언설을 통해 保守派의 代表的 人物로서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

19) H. Kohl, hrsg., *Die politischen Reden des Fürsten Bismarck*, 14 Bde, 1892~1905, Bd. 1, p.9f(앞으로 *Reden*으로 약).

20) *Reden*, Bd. 1, p.12f.

기에 표현된 그의 사상에는 王權神授가 관철되고 있다. 막스·렌쯔는 이때 비스마르크가 지녔던 政治的 立場을, “貴族이 완전히 社會的 指導權을 장악하고, 특수한 프로이센의 色彩를 띠고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古프로테스탄트의, 家父長制的 王權이 維持되는 상태”<sup>21)</sup>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理論은 다음해 3月革命이 발발하자, 혁명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는 고향에서 農民들을 선동, 무장시켜 ‘國王을 구출’하기 위해 베를린까지 원정하였다고 그의 回想錄에 기록하고 있다.<sup>22)</sup>

비스마르크는 革命期의 國民運動을 敵對視하였다. 당시 民族主義는 自由主義와 不可分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독일의 民族主義의 高揚은 프랑스革命의 영향 하에 일어난 국민들 속의 政治的 自覺을 기초로 하고 있다. 프랑스革命은 독일에 自由主義와 民族主義를 동시에 覺醒시켰다. 나폴레옹의 支配에 반항하여 解放戰爭에 참가한 大學生을 비롯한 義勇軍들에게 있어서 비인 會議 이후 구축된 독일의 구태연한 현실은 참을 수 없는 不滿의 원천이었다. 그것이 전쟁에서 귀환한 大學生을 중심으로 각지 대학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Burschenschaft운동의 본질이었다. 이 운동은 메테르니히의 칼스바드 決議로 철퇴를 맞게 되었다.

비스마르크가 비인會議의 正統主義的 立場에서 오스트리아와 함께 독일連邦을 아무런 疑念 없이 지지한 것은, 그것이 바로 革命에 對抗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프로이센王國의 存續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正統主義者 비스마르크가 帝國의 재상으로 취임한 뒤, 國民統一의 完成者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독일 社會情勢의 變化와 함께, 비스마르크 자신의 생각에도 큰 轉換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1851年 비스마르크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소집된 독일 領邦會議의 프로이센 大使로서 부임하여 政治家의 生涯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직면한 현실은 그가 상상하였던 이상으로 심각하였다. 프랑크푸르트의 분위기는 그가 프로이센에서 생각하였던 이상으로 反프로이센적이었다. 그는 부임 1개월 후, 친구 레오폴트·폰·게르라하(Leopold von Gerlach)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양국(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의 친신관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단지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라는 黨派의 立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分割線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의 또는 프로이센의인가 아니면 아무런도 아니라는 듯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다. 게다가 이웃 여러 군주들은 결경적으로 反프로이센의이며, 철저히 오스트리아의이다.<sup>23)</sup>

이러한 상태는 그가 지니고 있었던 正統主義 思想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21) M. Lenz, *Geschichte Bismarcks* 2 Aufl. (1902), p. 36.

22) cf. Bismarck, *Gedanken und Erinnerung*, Bd. 1 (1898), p. 20ff. (앞으로 *Gedanken*으로 약).

23) H. Kohl, hrsg., *Bismarcks Briefe an den General Leopold von Gerlach* (1898), p. 7. (앞으로 *Briefe*로 약).



뒤 회의에서 제기된 北海艦隊의 문제,<sup>24)</sup> 商業的 對立<sup>25)</sup>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의 대립을 더욱 깊게 하였다.

비스마르크의 反오스트리아적 의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시킨 것은 다음해 6월 비인 방문이었다. 그의 방문 목적은 양국사이에 商業條約을 체결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비인 內閣은 결코 프로이센의 友國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豫期했던 이상으로 대우를 받았으나, 직무상으로 나의 使命은 완전한 失敗로 끝났다.<sup>26)</sup>

오스트리아의 商業上의 利己的인 要求는 그를 크게 실망시키었다.

오스트리아는 그들 내부의 게르만적 중앙집권 정책을 위해, 그의 독일에 대한 관계 강화와 領邦에 있어서의 강한 헤게모니를 필요로 하고 있다. ... 한쪽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에 의해 '굴복을 당하게' 되다면 우리들은 서로 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참으로 불유쾌한 것이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한다.<sup>27)</sup>

그리하여 革命期의 비스마르크의 신조는 깨어졌다. 그가 프로이센 王國의 維持策으로 고집했던 正統主義는 이미 시대의 흐름과 동시에 온전히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와 비인 방문의 경험은 비스마르크를 partisan politician으로부터 state-man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28)</sup> 여기에서 비스마르크의 現實政策的 構想이 분명해진다. 그의 리알폴리틱스는 용커의 인터레스트와 國民이 아닌 國家의 인터레스트를 一體化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간주된다.

1859년, 이태리 統一戰爭이 발발하자, 나폴레옹皇帝가 이태리를 돕기 위해 롬바르디아에 출병하였다. 독일 國民들은 프링스의 다음 목표가 라인강변에서의 프랑스 領土擴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國民的 統一의 요구가 革命期 이래 처음으로 다시금 타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革命期에 비해 두 가지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는 그들이 혁명적 수단을 일체 피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革命期에는 불투명했었던, 프로이센을 盟主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 운동은 Preussische Jahrbuch 등의 잡지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팜플렛 등의 간행에 의한 宣傳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하노퍼의 自由主義者 Rudolf von Bennigsen을 중심으로 1859년 창립된 독일 國民同盟(Deutscher Nationalverein)이었다. 독일 國民同盟의 목표는 요컨대 독일의 國民的 統一

24) 북해 함대는 장래의 독일제국을 위해 창설되었다. 그것은 북독일 연방 부월 후에도 존속되어, 그 비용은 각국이 분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그 비용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문제에 있어서 다수결로 프로이센의 주장을 억압하려 하였다.

25) 오스트리아는 독일 관세동맹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파하고 스스로 동맹에 가입하여, 그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프로이센의 북독일에 있어서의 경제적 우위성을 타파하려 하였다.

26) Bismarck, *Gedanken*, Bd. 1, p.85f.

27) H. Kohl, *Briefe*, p.115f.

28) O. Pflanze,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1963), p.77.

을 프로이센의 主導權 強化와 國內의 自由主義化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다.<sup>29)</sup>

이러한 國民同盟의 主張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는 ‘國內의 自由主義’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同意하였다.

프로이센의 利益은 오스트리아 이외의 많은 連邦人民의 그것과 원진히 一致한다. 그러나 連邦 政府의 그것과는 一致하지 않는다. <sup>30)</sup>(傍點은 비스미르크)

#### 4

프로이센 憲法鬭爭期(1862年 3月~66年 9月)에 進歩黨을 主流로 하는 自由主義者들은 軍制改革에 반대하여 反政府 路線으로 결속하였다. 물론 그중에는 改良的 現實主義者들의 타협안도 제안되었으나,<sup>31)</sup>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事態를 타개하기 위해 1862년 9월 23일 비스마르크가 首相으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내각의 성립 직후, 議會는 反비스마르크 熱氣로 充滿하였다. 軍事豫算이 부결되었고, 비스마르크가 豫算案 없이 軍備擴張을 주장하자 발데크 등 急進派들은 헌법 99조 위반이라고 정부를 비난하였다.<sup>32)</sup> 비스마르크는 여론을 콘트롤하기 위해 進歩黨 공격의 프로파간다를 강화하고 自由主義的 裁判官과 官吏 등을 休職, 配置變更 등 強壓策을 구사하였다. 自由主義內 急進的 理念派와 改良的 現實派는 反비스마르크의 노선에는 一致하였으나 具體的 解釋 등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벨, 트베스텐은 二年現役制가 지켜진다면 政府案을 받아들일겠다는 妥協案을 제기하여, 이 타협안을 거부하는 비스마르크를 비난하였다. 한편 발데크, 슈츠텔릿체 등은 모든 案을 反對하여 비스마르크를 窮地에 몰아 넣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政治的 不安定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는 內政이 아니라 外政에 의해 마련되었다. 슐레스비히·홀스타인 문제가 그것이다. 독일 全國에서 兩公國의 덴마크로부터의 分離와 독일 併합을 요구하는 민족적 열망이 다시 끓어 올랐다. 이 열망은 온건하고 자유주의적인 Augustenburg公의 世襲權을 승인하는 自由主義的 見解와 결부되었다.

트베스텐, 지벨 등 改良的 現實派는 이러한 민족적 열망을 등에 업고 런던 議定書의 파기와 아우구스텐부르크公에 의한 自由主義的 公國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프로이센이 수행함으로써 프로이센이 ‘統一과 自由’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였

29) F. Salomon, *Die deutschen Parteiprogramme*, 4 Aufl. (1932), Heft 1, p.101ff.

30) Bismarck, *Gedanken*, Bd. 1, p.33.

31) 진보당원 트베스텐, 지벨 등이 제안한 것으로 그 내용은 2년 현역제도 도입과 450만 탈레드의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63년도 군사비 초과지출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초과지출의 원천 거부는 군대 자체의 파멸, 또는 격렬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헌법 체계마저도 혼란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다. Cf. F. Lowenthal, *Der preußische Verfassungskampf 1862~1866* (1914), p.88ff.

32) L. Parisius, *Deutschlands politische Parteien und das Ministerium Bismarck* (1873), p.63.

다.<sup>33)</sup> 이들 트베스텐, 지벨의 견해는 쾨텐마크 전쟁 직전 여론의 큰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急進的 理念派를 리드하고 있었던 술체·델릿체가 그들과 同調하게 된 사실이 이러한 점을 설명해 준다.

이에 대해 발텍 등 急進的 理念派는 다만 소극적으로 덴마크의 양 公國 支配에 반대하는 데 그쳤다. 그들은 議會가 憲法鬭爭에 승리하지 않은 한 ‘統一과 自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다.<sup>34)</sup> 이러한 急進派의 태도에 대해 여론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國王과 비스마르크는 대체로 아우구스텐부르크에 好意的이었다. 다만 비스마르크는 公國의 독립이 프로이센 北方에 自由主義의 結集點을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쾨텐마크 戰爭이 발발하자 더욱 거세어진 내셔널리즘은 ‘自由’에의 충성을 침식하기 시작하였다. 改良的 現實派의 기관지 『니치오날짜이퉁』은 10월 7일, 비스마르크에게 贅辭를 바치고, 憲法鬭爭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말과 정신에 의한 憲法의 확보가 아니라, 對外列強에 대한 국가적 힘(Macht)과 威信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비스마르크 내각이 출범할 때, 그것을 ‘명백히 封建的인 內閣’이라고 매도하던 태도와는 전혀 대조적이었다.

쾨텐마크 戰爭을 둘러싼 정치적 기류의 커다란 변화로 自由主義 勢力에 의한 反政府鬭爭의 路線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아직도 그들 사이에 一體性을 지켜주는 要因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政府의 對內的 強壓策과 뿌리깊은 옹키·비스마르크에 대한 不信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要因을 최종적으로 除去한 것이 프로이센·오스트리아 戰爭의 발발이었다.

쾨텐마크 戰爭의 戰後處理를 둘러싸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對立은 66년에 들어서서 한층 激化되어 갔다. 이미 政府는 戰爭의 不可避性을 각오하고 있었다. 自由主義者들은 이 戰爭은 全독일이 옹키政府에 저항하여 프로이센의 敗北로 끝나거나, 최소한 反動的 비스마르크는 파면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4월에 잇달아 열린 4개의 베를린 選舉區 集會에서 自由主義 指導者들은 다음과 같이 전쟁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트베스텐 指導의 第1區와 라스카(Lasker)지도의 第4區에서는 議會와 國民에게 지지를 받는 內閣에 의해 수행되는 戰爭에는 反對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술체·델릿체 지도의 第3區는 戰爭反對를, 랑겔한스 지도의 第2區에서는 戰爭에 반대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國內의 憲法鬭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sup>35)</sup> 그 이후 전쟁발발 직전까지 비스마르크 內閣의 打倒를 부르짖는 슬로건이 自由主義의 新동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그것이 놀랍도록 빠르게 성공하게 되자, 自由主義의 여론이 크게 變化한다.

33) J. Heyderhoff, "Karl Twestens Wendung zur Politik und seine erste politische Broschüre" (H.Z. Bd. 126, 1922), p.14.

34) Lowenthal, *op. cit.*, pp.210-212.

35) Spahn, *op. cit.*, p.166f.

進歩黨의 解體에는 다음 두가지 要因이 작용하였다. 戰爭이 유리하게 進行되자 비스마르크는 진보당내 온건파와 접촉하였다. 6월 1일, 트베스텐과 미하에리스를 만나고 20일 운로우와 만났다.<sup>36)</sup> 이 만남에서 비스마르크는 앞으로의 統一帝國 憲法으로써 立憲的 議會의 構成을 제안하였으며, 만일 自由主義者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그들에게 ‘서비스를 배플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北部 및 中部의 非프로이센 지역의 自由主義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national und liberal”이라는 구호를 내건 여러 단체를 출현시켰다. 7월 12일 베니그센(Bennigsen)의장을 중심으로 열린 하노퍼 集會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여기에는 작센 이외에 北독일의 非프로이센 지역의 自由主義者가 모였다. 이를 보도한 『나치오날짜이퉁』지가 처음으로 ‘nationalliberal’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sup>37)</sup> 그들은 프로이센의 自由主義者와 다르게 옹기·비스마르크와 직접 對決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통일을 위한 戰爭에 同意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전쟁을 지도하는 비스마르크에 반대하는 二律背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은 분명히 ‘自由’보다는 ‘統一’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

한편, 自由主義者 중에서 부르주아의 利害를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었던 經濟的 現實派는 더욱 낙관적인 路線을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進歩黨에 속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自由貿易에 대한 일관된 주장 등 독자적 活動으로 國民經濟 分派(Die volkwirtschaftliche Unterfraktion)라 호칭되었다. 그들의 지도자 Michaelis는 비스마르크의 對外政策의 成功을 승인함으로써 立憲的 權利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祖國의 위대한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는 憲法에 反對되는 統治는 곧 끝나게 될 것이다.<sup>38)</sup>

그들은 분명히 ‘統一’에서 ‘自由’로의 路線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이 모든 부르주아의 合意下에 순조롭게 進行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859년부터 1866년 사이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主導權을 둘러싸고 外交·軍事的으로 對立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通商政策에서도 격렬히 對立하였다. 오스트리아 商務相 Bruck를 중심으로 독일 關稅同盟에 오스트리아를 加入시키려는 기도가 치열하게 추구되었다.<sup>39)</sup> 그는 오스트리아의 指導下에 中歐經濟 불력을 형성하여, 오스트리아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과 함께, 프로이센의 弱體化를 기도하였다. 브루크는 이 政策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국과의 경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프로이센의 重工業과, 保護貿易政策을 추구하는 南·中 독일의 纖維工業의 支持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섬유공업은 그 販路를 프로이센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

36) *Ibid.*, p. 356.

37) *Ibid.*, p. 400.

38) Schunke, *op. cit.*, p. 33.

39) H. Böhme, *Deutschlands Weg zur Großma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Wirtschaft und Staat während der Reichsgründungszeit 1848~1881* (1966), p. 13ff.

문에, 프로이센과의 경제적 결합을 단절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 工業自體도 프로이센 市場을 위해 브루크의 解任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1854年 하노퍼와 프로이센 關稅同盟이 성립됨으로써 프로이센의 立場을 強化시켜, 결국 1862年 프로이센-프랑스의 通商條約이 성립됨으로써, 오스트리아는 小독일主義的 經濟統一體로부터 완전히 축출되기에 이르렀다.<sup>40)</sup>

당시 經濟的 現實派의 리더중에는 디스콘트 게젤샤프트 銀行을 설립한 財界의 巨物인 David Hansemann의 大독일主義的이라 할 독일 問題 解決策과 라인 부르주아의 代表者 Gustav Mevissen의 小독일主義的 解決策이 對立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일 經濟人會議(Kongress deutscher Volkswirte)’와 ‘독일 商業會議(Deutscher Handelstag)’를 통해 독일 統一을 前提로 한 經濟的 統一을 추구하였다.<sup>41)</sup> 그러나 이 會議에서 小독일主義的 統一, 世界市場의 參加, 自由貿易主義의 三要素가 우세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이들 自由主義의 주장은 당시의 政治的 經濟的 現狀에 보다 現實的이었기 때문이다. 多民族 國家인 오스트리아를 독일 國民國家에 融合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곤란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당시 독일 工業의 발전으로부터 世界市場에의 참가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世界市場에의 참가를 위해서나 對內的 自由主義를 위해서도 自由貿易主義를 주장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 결국 自由主義란 어떤 教條나 信念의 體系라기보다는 現實主義였던 것이다.

## 5

1866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물리친 쾨니히그라쯔 勝戰이 전해진 직후, 自由主義者 구스타브 메비센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

나는 軍神의 崇拜者는 아니다. 그러나 勝戰譜는 平和의 使徒들에게 마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람들의 意見은 어느 편에 融合되어, 이 순간의 成功의 神을 칭찬하는 끊임없이 긴 行列에 시게 하고 있다.<sup>42)</sup>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비스마르크는 그가 재상에 임명된 뒤 처음으로 굳건한 政治的 기반에 설 수 있었다. 그 뒤 그는 실제로 自由主義者들의 支援 없이도 統一運動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國王側近의 保守主義勢力은 國王에게 더 이상 自由主義者들과 妥協할 필요가 없다고 助言하였으나, 비스마르크는 事後承認案(Indemnität)을 통해 自由主義者들이 憲法鬭爭의 와중에서 벗어날 출구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事後承認案은 이론적으로 政府가 議會의 豫算權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對外戰爭이라는 특수

40) *Ibid.*

41) cf. H. Rosenberg, *Die Weltwirtschaftskrise 1857~1859* (1972), p.195ff.

cf. Henderson, *The Rise of German Industrial Power 1834~1914* (1975), Chap. II.

42) O. Pflanze,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1963), p.327.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사후 승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自由主義勢力의 面目을 지켜주자는 案이었다.

事後承認案은 프로이센 下院에서 행한 國王의 開議 演說에서 제기되었다. 막스·폰·폴켄베크(Max von Forckenbeck)의 주도하에 온건파 자유주의 입장의 의원들은 수락 연설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進歩派로부터 保守派에 이르는 의회에 모든 構成員으로부터 찬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우선 國王이 提起한 事後承認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이 案을 “충실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人民의 憲法上 權利를 維持, 發展시키지 못하는, 權力을 확고히 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독일의 魂과 심장에 대한 충성을 말할 수 없다.”<sup>43)</sup>라고 하였다.

事後承認案을 討議하는 過程에서 독일 自由主義 勢力의 分裂이 노출되었다. 急進派에 속한 B. Waldeck, R. Gneist, R. Virchow, H. Schulze-Delitzer, L. von Hoverbeck 등은 이 案에 반대하였다. 온건파에 속한 K. 트베스텐, O. 미하이리스, E. 라스키 등 장차의 國民自由黨의 構成員들은 이 案에 찬성하였다. 당시 트베스텐은 “下院은 더이상 政府에 대해 양보를 기대할 입장이 아니다. 政府는 事後承認案 없이도 만일 필요하다면 과거처럼 統治해갈 것이다. 과거에도 下院은 政府의 통치행위에 무력했다. 더구나 케니히그라쯔의 勝戰以後의 現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한데 이어 “우리는 自由를 위한 전진을 포기하는 않된다. 그러나 우리 祖國의 힘의 발전과 독일의 통일——그것은 우리가 自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고 위대한 기초이다.”<sup>44)</sup>라고 주장했다.

이들 ‘國民自由主義者’들이 비스마르크를 지지한 背景은 무엇일까? 우선 外國에 의한 支配와 위협으로부터 自由로운 통일된 國民國家에서만 個人的 自由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였다. 이런 견해는 Herder에서 그 맹아를 보였던 생각이었다. 民族的 統一과 힘만이 國家內 自由를 위한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E. 라스키는 英國은 外部로부터의 攻擊으로부터 自由로왔기 때문에 自由로운 憲政을 維持하였다고 하였다. 즉 독일처럼 분열되어서는 외국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軍備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이 統一되어야 독일뿐 아니라 전유럽에서 진정한 自由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5)</sup> 때문에 비스마르크 統一事業의 결실을 보기까지 자유주의의 목표는, 포기되어서는 안되나, 留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센의 自由派의 半을 약간 넘는 의원이 事後承認案에 찬성 투표를 하였다. 保守勢力의 지지로 이 案은 질내 다수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憲法鬭爭이 마무리지워 지게 되었으나, 그후 進歩黨을 주류로 하는 自由主義勢力은 親비스마르크派와 反비스마르크派로 兩

43)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 des Landtages, Haus der Abgeordneten 1866* ~1976, 1:82-83 (앞으로 *Sten. Ber.*로 약함).

44) *Sten. Ber.* 1:197-198.

45) *Ibid.*, 1:184.

분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결코 政府에 ‘投降’했거나, 그들의 自由主義的 目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人民의 憲法的 權利에 대한 감시는 태만시되거나 근절될 수 없다. ...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감시의 의무감과 충성스러운 반대의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sup>46)</sup>

이러한 宣言은 결코 레토릭뿐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식으로 黨으로 발족하기 전까지는 自由主義 勢力的 主流를 이루는 ‘새로운 分派(Neue Fraktion)’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다. 1866년 회의의 閉會期 동안 라스커와 트베스텐 등은 프로이센 內閣의 反動的 政策에 대해 신랄한 批判을 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감시적 역할을 한다는 자세를 과시하였다.<sup>47)</sup>

1867년 2월 27일 議員會議에서 60명의 議員이 國民自由黨의 結成에 찬성하고 R. Bennigsen을 黨首로 추대하였다. 그 뒤 3週동안 72명의 議員이 黨員으로 가입하였다.<sup>48)</sup> 그러나 이 黨은 온건 자유주의 세력의 離合集散으로 이루어진 國民自由黨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團結된 모습을 띠었던 것은 아니었다. 黨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트베스텐, 라스커, 폴켄베크 등은 黨의 左翼을 형성했고, 하인리히 폰 트라이취케 등이 右翼을 이루었으며, 당수 베니그센이 이끄는 主流가 中央派였다. 黨의 기본적 입장은 비스마르크와 그의 體制를 統一을 위해 필수적인 體制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理想은 法治國家(Rechtsstaat)로서 國民의 代表機關인 議會가 國政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理想에 반하는 조치를 비스마르크가 행할 때에는 이에 결연히 反對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행할 만한 정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妥協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독일 統一이라는 至上課題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스마르크의 統一政策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대신 그들의 自由主義的 改革, 예컨대 個人의 自由, 法앞에서의 平等, 自由放任의 經濟的 立法, 代議制를 강화하기 위한 諸改革 등을 꾸준히 推進하였다.<sup>49)</sup>

國民自由黨의 ‘投降’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흔히 이 黨의 統一政策이 강조되고 있다. 분명히 國民自由黨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目標은 統一問題였다. 1867년 北독일 連邦의 結成과 1870~71年 帝國 創建에 있어 國民自由黨은 議會에서의 찬성투표와 전국 유세를 통해 비스마르크를 지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國家統一 政策에서조차 黨은 비스마르크의 意圖와 이긋나는 條件을 제시하였다.<sup>50)</sup> 黨은 비스마르크의 憲法 制定에 있어 自由主義的 修

46) Parisius, *op. cit.*, pp.18-19에서 인용.

47) *Sten. Ber.* 2:783-788, cf. 878-881.

48) Schunke, *op. cit.*, p.82.

49) cf. Salomon, *op. cit.*, Bd. I: 119-124, Bd. II :20-23.

50) cf. Pflanze, *op. cit.*, pp.337-363.

正案을 제시하여 투쟁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議會의 特權을 강화하는 데 어떤 면에서 성공하였다. 즉, 帝國議員의 法的 免責權이 인정되었으며, 帝國議會의 토의, 언설을 신문이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하였으며, 의회 해산후 帝國議會 選舉 日程을 확정하였고, 특정한 條約에 대한 議會 承認을 요구하였다. 가장 중요한 改正은 國稅와 歲出에 대해 議會가 진정한 權限을 갖게 된 점이다. 물론 중요한 軍事豫算에 있어서는 妥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요구하였던 議會의 kontrol을 전혀 배제한 ‘鐵의 豫算(iron budget)’을 거부했으니, 軍事豫算을 7年間 一括하여 인정하는 Septennat를 허용하였다.

國民自由黨은 1867年~70年の 기간 동안 비스마르크의 統一政策에 반대하는 Baden, Württemberg, Bavaria 등에 직접 E. 라스커 등을 보내어 宣傳 說得을 함으로써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 하였다. 라스커는 이러한 행동이, 통일정책을 주도, 독점하려 했던 비스마르크에게는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統一政策을 ‘血과 鐵’ 政策에 맡겨버리기보다는 國民自由黨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 帝國에 있어서 自由主義의 影響을 發揮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51)</sup> 國民自由黨의 슬로건은 “독일의 統一과 독일의 自由는 동시에, 같은 수단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sup>52)</sup>는 것이었으며, 黨의 宣傳活動은 바로 이러한 目標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國民自由黨 政策의 自由主義的 性格은 어떠한 것인가? 우선 經濟面에서 살펴보면, 國民自由黨은 수세기에 걸친 分權的이고 半封建的이며 重商主義的인 여러 制裁를 청산시키는 政策을 推進하였다. 債務 奴隸制와 高利貸金法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會社 設立을 위한 立法이 이루어졌고, 라이프찌히에는 經濟 紛爭을 다루는 法廷이 출현했다. 營業과 交易의 自由를 제한한 여러 遺制가 폐기되었다. 統一國家의 성립은 貨幣의 統一, 도량형의 統一과 라히스방크의 創立 등으로 經濟活動과 市民生活에 큰 進歩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國民自由黨의 經濟的 自由化의 요구는 비스마르크의 統一事業의 공고화 정책과 맞물려 큰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것을 국민자유당은 그들의 妥協政策이 이루어 낸 커다란 성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國民自由黨이 추구한 그들의 여러 自由化 政策은 保守派의 완고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sup>53)</sup>

法制的 面에서도 個人權과 市民權을 보증하는 여러 法律案이 가결되었다. 居住移轉과 結

51) H. Oncken, *Rudolf von Bennigsen*, 2 Vols. (1910) Bd. 2, pp.17-86. 특히 1870年の 국민자유당과 라스커의 선전활동은 최근에 이르러 논쟁이 될 바 있다. cf. W. Lipgens, “Bismarck, die öffentliche Meinung und die Annexion von Elsass und Lothringen 1870” (H.Z. 199, 1964), pp.31-112; L. Gall, “Zur Frage der Annexion von Elsass und Lothringen 1870” (H.Z. 206, 1968), pp.265-326; W. Lipzens, “Bismarck und die Frage der Annexion 1870: Eine Erwiderung” (H.Z. 206, 1968), pp.586-617.

52) 국민자유당의 1867년 6월 프로그램 중에서, Cahn, *op. cit.*, pp.158-163에서 인용.

53) Parisius, *op. cit.*, pp.124-126; V. Valentin, “Eduard Lasker or the Tragedy of German Liberalism” (MS in the Leo Baeck Institute) p.264.



婚에 있어서 許可制가 폐기되었으며, 宗教에 대한 규제도 폐지되었고, 우편물에 대한 기밀 보전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刑事法과 裁判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져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人權이 보장되었다. 議會內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權利, 結社의 自由, 言論의 自由 등이 확대되었다. 프로이센 東部 6州에 있어서 귀족령의 裁判權, 警察權의 廢止, 그리고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였으나, 1872年 州條令에 의한 地方自治制의 導入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地方自治制는 용커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國王의 介入으로 겨우 프로이센 上院을 통과할 수 있었다.<sup>54)</sup> 이러한 保守勢力의 반대에 직면해서 國民自由黨은 때때로 그들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중요문제에 있어 양보, 타협하였다. 그것을 ‘投降’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미 살펴 본 대로 그들의 自由化 改革은 상당히 본질적인 것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들은 비스마르크 體制內에서도 앞으로의 改革이 가능하다고 굳게 확신하였다.

라스커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여기는 계속되는 작업이 동성한 성과를 거두는… idyllic land이다. 젊고 더운 여름 동안 귀중한 씨앗이 뿌려져서 값비싼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었다.<sup>55)</sup>

## 6

1871년부터 77년까지 비스마르크와 自由主義者 사이에 蜜月이 계속되었다. 自由主義者들이 비스마르크와 협력한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 독일의 統一을 열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최초의 問題 提起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進歩黨을 떠난 自由主義者들은 과연 ‘프로이센의 權威主義와의 鬭爭을 포기한’ 것인가? 그들은 완전한 의미의 議會 民主主義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지향한 것은 權力이 國王과 議會에 병존하는 立憲王政이었다. 그리고 그리한 권력구조 속에서 自由主義의 立法을 통해 民主化를 계속 추진하리 하였다. 그들이 비스마르크의 統一政策을 支持하였을 때, 그들은 그 보상으로 國內의 自由主義의 改革을 요구하였다. ‘國民적이고 自由主義的’인 兩面政策이 그들의 정치적 최종 목표였다.

그러나 이 兩面政策은 동시에 치명적인 缺點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비스마르크의 君主制의 權威主義의 統治理念과 언젠가는 정면 충돌한 위험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프랑크푸르트 시기 이후, 그가 품고 있었던 용커의 正統主義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 당시에는 부르주아 階層의 이데올로기였던 統一政策으로 轉向하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正統主義를 버린 것은 내셔널리즘의 風潮 속에서 호엔졸레른家の 支配를 수호하려 한 一念에서였다. 그리고 그의 ‘現實政策’은 이러한 目的을 위한 냉정한 이해득실을 계

54) Oncken, *op. cit.*, Bd. 2, p.237; Philippson, *op. cit.*, pp.192-201, 236-237, 245-247.

55) Cahn, *op. cit.*, pp.63-64.

산한 성질의 것이었다. 따라서 議會多數派의 뜻에 따라 權威主義的인 王權이 제한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에게는 허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時代의 흐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統一을 위해서 自由主義 勢力的 支持가 없이는 國民 統合이란 과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믿었다.

國民自由黨, 특히 左派는 비스마르크로 하여금 중요한 自由主義的 改革에 양보하도록 계속 밀고 갔다. 그런 의미에서 國民自由黨은 적어도 1880년 以前까지는 비스마르크의 손쉬운 道具는 아니었다. 특히 비스마르크가 ‘赤’이라고 지칭한 라스커를 비롯한 左派와의 충돌은 70年代부터 시작되었다. 文化鬭爭과 軍事豫算(Septennat)紛爭을 통해서 비스마르크와 左派 사이의 관계는 골이 깊어갔다.

國民自由黨이 自由主義 理念을 實現하는 데 완전히 성공적이었으며, 內部的 약점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독일의 自由主義 勢력이 비스마르크의 帝國創建을 위해 그들의 自由主義 理念을 단념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점차적으로 독일의 自由主義는 비스마르크의 강경한 議會對策에 의해 그 영향력을 소진시켜 갔다. 文化鬭爭에서 시작되는 비스마르크의 對議會 統制策은 독일 自由主義의 쇠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局面이다. 本稿에서는 國民自由黨의 成立과 帝國 初期의 ‘自由主義 時期’ 단계에 限定하여 고찰하였다.

## Bismarck and German Liberalism

In-Sok Oh

The German National Liberal Party was formed in 1866 to support Bismarck's policy of German unification. The birth of the party under these circumstances has led most historians to see it as the "capitulation" of German liberalism to Bismarckian power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that the liberals capitulated. Nineteenth-century liberalism in Germany had much in common with its western European counterparts. But—because of the specia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Germanies—it also had unique aspects. If one seeks in the German liberal an unbending hostility to the monarchist state, absolute claims for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justification for revolution, one will be disappointed. Instead, German liberalism was more moderated. It was a movement to change the state of princely absolutism, of clerical and noble privilege, and of social and economic restriction, into the *Rechtsstaat*.

Separation of powers—a mixed constitution with domination by neither the parliament nor king—was the liberal goal. When they declared they would support Bismarck's national policy they also said they would continue to strive for internal liberal reforms, this twofold policy—both national and liberal—remained the basis of their actions. Had the National Liberal party not existed, or had it not contained the influential element, the liberal would have accomplished much less, in the formative years of the German Empire.